

#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여성의 화장

-화장품 광고를 중심으로-

한보현\* · 양취경

진주국제대학교 미용예술학과 · 성신여대 의류학과 교수

화장의 경향은 시대마다 유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시대의 유행 흐름에 많이 벗어난 화장을 하면 세련되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되므로 여성들은 화장의 미묘한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며 자신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러한 화장의 유행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의 화장에 대한 표현 경향을 세부적으로 고찰하여 화장경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으며 한국여성의 화장 표현에 대한 변화유형 확립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연대구분을 1980~1989년까지와 1990~1999년까지로 하여 년대별로 화장품회사 광고에 나타난 화장특성을 전체얼굴화장, 색, 이미지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후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화장경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1980년에서 1999년까지 발행된 국내월간 간행물의 화장품회사 지면광고와 향장지, 인터넷광고, 국내 관련서적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얼굴화장경향은 1980년대는 강한 선과 진하고 화려한 색조로 눈과 입술을 다 강조하여 활력 있고 건강한 아름다움과 화사한 여성미를 추구하는 반면 1990년대에는 부드러워진 선과 밝고 은은한 색조 또는 낮은 톤의 어두운 색조로 자연적이고 낭만적인 여성미를 추구하였다. 눈 화장의 경우 눈썹의 형태가 1980년대에는 굵고 진한 각이진 눈썹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크게 나타나며 1990년대에 와서는 그 굵기가 가늘어지며 각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새도는 1980년대에는 눈 꼬리 쪽을 사선으로 올려서 강조하거나 눈 꼬리를 길게 그리고 언더새도도 강조하여 강한 느낌을 주었으나 1990년대에는 메인컬러와 포인트 컬러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하였으며, 언더새도도 다소 약해졌다. 또한 아이 훔 기법을 이용하여 입체감 있는 눈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아이 라인은 1980년대에는 강한 색의 아이 새도 색상과 맞춰서 굵고 뚜렷한 라인이 많이 나타났으며 1990년에는 점차 가늘어져서 후반에는 속눈썹 사이를 메꾸는 듯한 느낌의 깊은 눈매를 표현하였다. 마스크라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모두 풍부하고 볼륨감 있는 표

\* Corresponding Author: suehan317@hanmail.net

현을 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컬러 마스크라가 등장하여 보다 개성 있는 눈매를 연출하였다. 입술화장의 경우 1980년대에는 초반에 스트레이트형이 많이 나타났으나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입술선이 둥글게 나타났으며, 1990년대에는 대체로 아웃커브의 볼륨감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 볼 화장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진한 색의 직선적인 느낌이 점차 부드러운 느낌으로 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보다 연하게 혈색만 부여하는 느낌으로 바뀌어 나타났다. 둘째, 화장색은 1980년대에는 다양하고 강렬한 색과 펄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황금색 펄을 사용하여 화려한 화장을 하였다. 1990년대에는 산호색, 연분홍색 등으로 보다 은근한 색을 사용하여 대체로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였으나 매우 어두운 흑색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여 도발적이고 개성 있는 화장을 하기도 하였다. 셋째, 화장이미지는 1980년대에는 엘레강스 이미지, 클래식이미지, 액티브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으며, 1990년대에는 내추럴이미지, 로맨틱이미지, 모던이미지가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볼 때 한국여성의 화장 경향이 1980년대의 진하고 인위적인 화장에서 1990년대에는 보다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현대적인 화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화장의 흐름이 빠르게 전달되고 있는 만큼 자유스러운 변화와 흐름에 맞추어 여성들이 아름답게 변화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이어지는 화장의 흐름에 대해 패션, 헤어, 네일 등의 타 분야와 관련지어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되어 진다.